

학생 수 증가에도 정원미달 大 ↑... 서울-지방 양극화 뚜렷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 분석

대학 지원자 수 전년비 10만명 ↑
서울-지방 평균경쟁률 두배 수준
1대 0 미만 한계대학 80% 지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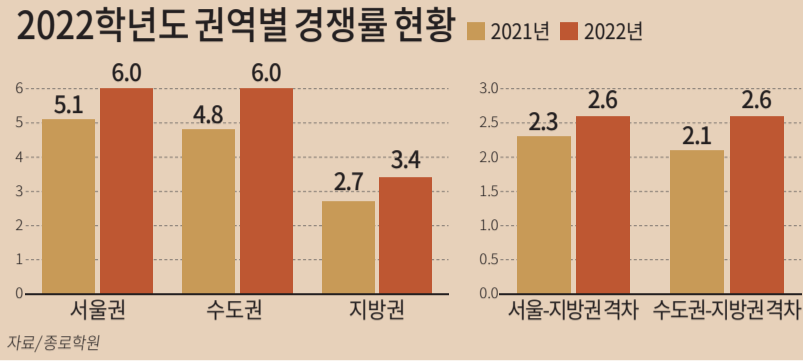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수도권과 지방권 대학 경쟁률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대 0’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며 원서 접수조차 학생 수만큼 하지 못한 ‘미달 대학’도 지난해보다 10곳 늘어 18곳에 달한다. 이중 80% 이상이 지방권 대학이다.

◆수도권-지방권 대학 모두 지원자 늘었지만 격차도 커져

5일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올해 서울권 평균 경쟁률은 6대 1로 지방권(3.4대 1)과 2.6대 1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일 정시 접수를 마감한 ▲서울권 37개교 ▲수도권 36개교 ▲지방권 106개교 등 총 179개 대학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지방권 대학 경쟁률(3.4대 1)은



2.7대 1이던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서울권 대학 경쟁률 대비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해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대 1, 지방권은 2.7대 1로 2.3대 1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전국적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수도권의 73개 대학 전체 지원자는 27만4719명, 지방권 106개 대학의 전체 지원자는 20만5024명이다. 이중 서울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16만8171명으로 지난해보다 36.6%(4만5022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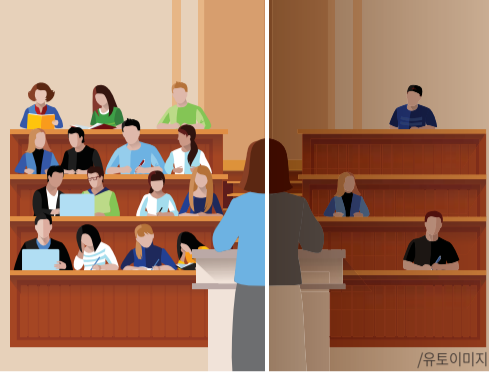
지방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방권 대학 지원자 수는 올해 20만5024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늘었다. 지난해 지방권 대학 지원자수는 2만7470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 경쟁률 5.1대 1에서 6대 1로, 수도권은 4.8대 1에서 6대 1로, 지방권은 2.7대 1에서 3.4대 1로 모두 상승했다.

◆전체 경쟁률 상승 원인은 ‘수시모집 이월·수능 응시인원 확대’ 때문

정시모집 전체 경쟁률 상승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전년도 대입보다 5039명(198개 대학 기준) 줄었지만,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44만8138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7104명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34명으로, 2022학년도 44만8138명으로 늘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각각 2만3577명, 3527명 증가했다.



늘어... ‘사실상 미달’ 58곳

전국적인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계대학은 더 크게 늘었다. 특히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이 ‘1대 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는 18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권 15곳, 수도권 2곳, 서울권 1곳의 대학에서 ‘1대 0’ 미만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9곳으로 늘어난다. 수험생은 모집 지원군별로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최종 입학 등록에는 이 중 한 곳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미달’ 대학 59곳 중 83.1%에 해당하는 49곳이 지방권 대학이며, 서울권에서도 7개 대학이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했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대학 경쟁률 상승에서 한전공대 등 특수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 서울권 명문대 제2캠퍼스, 약대가 경쟁률 상승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며 “지방권 소재 상당수 비인기 대학은 추가모집과 미충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지원 확대... 3월 정상등교 추진

2022 교육부 업무계획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고수
1학기 학교 방역인원 6만명 지원
유은혜 장관 “기본방역체계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교육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한다. 다만, 당초 3월 시행에서 한 발 물러나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시 의료실비 보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3월부터 정상 등교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

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계 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

르면, 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75.6%,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월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은 성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4일)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타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정부가 즉시 항고를 예고한데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와(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3월1일로 조정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로 다시 미뤄졌으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을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본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전수 지원한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하고 학교밖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발표한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는 등교의 비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등교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등교의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답하지 못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에 대해 “(정상등교의) 구체적인 기준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2022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순천향대, ‘교원양성 역량진단’ 우수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과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 발전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진단 평가인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순천향대는 ‘교육대학원(양성과정)’과 ‘특수교육과’가 각각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으

며, 이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감축 및 폐지에 대한 면제 혜택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순천향대는 나눔 실천과 우수 교원 양성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SCH 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 ▲학부 교육역량 검사 ▲SCH 에듀토틀링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를 높이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이재준 교수, 태양광발전학회 회장 취임

제9대 회장, 올해 12월까지 1년 임기
동국대학교는 이재준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1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다.

기초·원천 연구 및 산업화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들과 관련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0여 명



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재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소자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광 전지(ALC)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윌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발간하는 광에너지 변환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 학술지 ‘솔라 알알엘(Solar RRL)’ 표지논문 선정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안윤주 건국대 교수 국제 학술지 부편집장 선임

건국대학교는 안윤주 상허생명과학대학 환경보건과학과 교수가 국제 환경과학 저명 학술지인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의 부편집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은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 엘제비어(Elsevier)가 출간하는 환경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 중 하나로, 유해물질의 환경영향과 리스크 저감을 다룬다. 안 교수는 생태 독성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1월부터 생태독성·위해성 분야 논문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